

장학월보

2011 제216호(통권435호) **2**

■ 장학특집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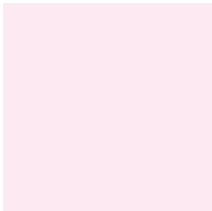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2 제216호(통권 435호)



02 권두언

• 여러분이 경남교육의 브랜드입니다 / 고영진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 정용복

08 특집 /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 김숙정

•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 / 설현구

•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산청선비교육 / 강해영

• 도전과 배려의 청량 6대 프로젝트로 창의적 인재 육성 / 김기환

• 줄탁동기[桴箏同機]로 빛어낸 지역연계 체험활동 / 양영오

30 수업기술 나누기

• 톡톡톡 말문이 열리는 영어 / 김양자

• 그림책에서 찾은 재미있는 수학놀이 / 신승화

34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37 이색 교육 현장

• 교육미술로 공부의 주인이 되었어요 / 하정용

• '바다를 닮은 아이들' 합창단 이야기 / 정혜선

• 수남초등학교 교사들의 '작은 음악회' 이야기 / 김용운

• 전교생 영어·한자 자격증 취득 / 허순상

47 참여마당

• 교 원 - 백밥을 먹는 즐거움 / 구은복

• 학 생 - 가보고 싶은 나라 일본 / 강고은

52 향기나는 서가

• 『티코 브라헤』를 읽고 / 조기만

54 음악이야기

•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 정윤호

57 지상갤러리

• 입신양명 / 손봉호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3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2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2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여러분이 경남교육의 브랜드입니다.

올 겨울은 80년 만에 찾아 온 한파로 그 어느 해보다 추운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혹한 속에서, 새 생명의 연둣빛 가득한 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도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 추위가 크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병충해가 적다.’ 하여 추위마저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몸은 춥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과 미소를 나누며 혹한을 이겨내시고, 신학기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시대의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물러나고, 이제 세계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날이 새로운 변화와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때 열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를 넘어, 이제 세계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부가가치는 ‘사람이 가진 가능성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브랜드와,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성과에 매겨지는 브랜드가 더욱 중요한 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현대인이 소비하는 것은 소비재가 아니라, 그 소비재의 ‘이미지’에 흡수되는 마케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 해도 브랜드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건에도 브랜드가 있다면,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삶의 힘'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도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무형의 지식을 추구할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에 각 개인마다 더욱 높고 큰 브랜드를 지니고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브랜드를, 교사는 교사다운 브랜드를, 관리자나 경영자는 그에 걸맞은 브랜드를 지니고 경남교육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 경남교육은 비로소 으뜸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두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스스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없이 절차탁마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과거는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납니다. 역경에서 멈추고 만 사람의 과거는 스스로 함몰되어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인생경영'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역사를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쓰고 있나?' 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성실히 채워나가는 우리 교육가족이 됩시다.

브랜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역사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자신의 가치와 브랜드를 생각해 보고,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더 나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고유하고 특별한 브랜드를 드높은 열정으로 키워 나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경남교육의 브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학교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 참석 - 경남 10개교 선정
- 02 국립 3.15 민주묘지참배
- 03 경남교육상 시상식
- 04 삼성중공업과 MOU체결
- 05 일본 다이고마치 소학교 아침 독서 견학
- 06 창원문화재단과 MOU체결



07



08



10



09



11

- 07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방학중 종일반 대상 체험 활동 실시
- 08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2010. 학교 평가 후속 학교 컨설팅 협의회
- 09 통영교육지원청 - 새내기교사 연수회
- 10 의령교육지원청 -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개최
- 11 김해도서관 - 2011년 겨울독서교실 운영
- 12 남해교육지원청 - 2011.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국가 안보의식 함양 학교장 연수회



12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정 용 복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장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이 말은 지난 1월 3일 우리 도교육청 시무식에 즈음하여 고영진 교육감께서 신묘년 새해에, 우리 경남교육 가족 모두가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직무에 임하도록 희망하는 메시지이다.

그러면, 봉사란 무엇일까?

봉사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속에서 타인의 뜻을 받들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돈, 노력 등을 최선을 다해 나누는 것이다.

이런 봉사의 태도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 역량을 알 수 있게 한다.

공직자로서의 봉사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선서함으로써 출발한다.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며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봉사를 할 때는 ‘먼저 주고, 항상 주고, 빈 곳에 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는 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체질화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첫째, 경청하는 자세를 생활화 해야 한다.

먼저 들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이 바로 ‘마음으로 경청’ 하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내 마음 속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귀를 크게 열어 겸손하게 들으면 상대의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귀를 좁혀 교만하게 들으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아무리 잘 이해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봉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세상을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다. 상대의 느낌, 상대의 아픈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상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상대의 고민과 불편함을 찾아 낼 수 없다. 하지만 상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아픔이 뭇지 눈에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이 관심은 봉사의 원인을 제공해 준다.

셋째,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찾아낸 아픔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공직자는 원래 공직에 임명되면서부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기에 무엇보다 상대의 불편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봉사의 으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상대의 불편함과 고민을 해결해 주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없으면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상대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자신의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공직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심신이 병들면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남의 아픔을 인식할 겨를이 없으며 봉사의 마음은 더더욱 생겨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자는 자신의 주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이 흐트러져 있으면 자기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없고 상대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절로 우려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양하며,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직장에서는 조직구성원 상·하간, 동료간에 서로 상대의 불편함과 고민을 해결해 주며, 우리 교육가족들의 불편함을 찾아내어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교육은 사람을 키워 내는 일이다.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봉사와 열정이 필요하다. 항상 경청하는 자세와 봉사의 마음으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일에 매진한다면, 실력과 배려를 제대로 갖춘 진정한 미래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서 나가는 경남 교육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김 숙 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장

우리 학교교육은 기초능력을 중심으로 많은 지식을 암기하는 19세기형 학력에서는 우수하지만, 창의적인 사고나 고차원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21세기형의 학력에서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손우정·김미란 역, 2003). 또한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지만 과연 이것이 비판적 사고력, 정보활용 능력, 개별적 지식구성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창의적 성향 역시 학업성취도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및 자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창의성 교육이 수학, 과학, 예술, 체육, 문학 등의 소수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엘리트 교육의 개념이라면 앞으로의 창의성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인성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모두 함양하는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생과 국가사회 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설계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들을 더 만족시키되, 교사들은 복수자격화, 교원평가 등 더 부담이 될 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할 때 지향하는 방향이 옳다면 이해관계를 접고, 학생과 국가사회 공동체를 위해 교육 개선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동의하는 바는, 기초 기본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충실히 교육받아야 하고, 특수 전문 교육은 적성과 진로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알맞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질과 적성이 일찍 드러나 전성기가 빠른 예술이나 체육 등은 중학교부터, 고

교부터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맞을 것이다.

PISA나 TIMSS 등 국제학력비교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최장학습시간을 투입한 결과로 수치화 된 성적은 높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질과 적성을 제쳐두고, 억지로 무작정 공부한 결과이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자 학기당 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하였고, 기초기본 교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20% 범위내에서 과목(군)별 수업시수 자율증감을 허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특정 학년 학기에 집중이수하여 학생들이 겪는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중학교에 집중이수를 도입하였다. 즉 교과를 그 특성에 맞게 실험 실습 실기 등도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이수/미이수 우려 등 선생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이에 대한 자체 대책도 수립 완료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을 먼저 생각한다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교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개인맞춤형 교육과정은 다소 어렵겠지만, 고교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잘 하는,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역 내 학교 간에 경쟁보다 다양한 진로 집중과정을 개설해 주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고교교육의 진로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가령 중고교에 도입되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와 같이 국·영·수, 문·이과에만 치우치지 않고, 특목고와 전문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풍성한 교과목 속에서 진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 맞게 대학입시에서도 고교의 진로 집중과정별 핵심교과가 대학의 모집단위(계열, 학부, 학과)별로 필요한 선수과목과 상응하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고교에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 대학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공부하려면 양자를 이어주는 진로별 대입시가 꼭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제 구실하듯이, 모든 교과목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쇄신하면 각 진로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 국·영·수와 문·이과 중심의 교육 관행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진로화가 절실했다. 따라서 대학입학제도가 획일적인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해서 학생들의 창의성, 소질, 적성,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어,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수월성이 대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교육가족들은 교육과정과 대입시를 둘러싼 반대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부에서도 2009 개정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



설 현 구
김해 율하초등학교 교장

1. 하얀 도화지를 앞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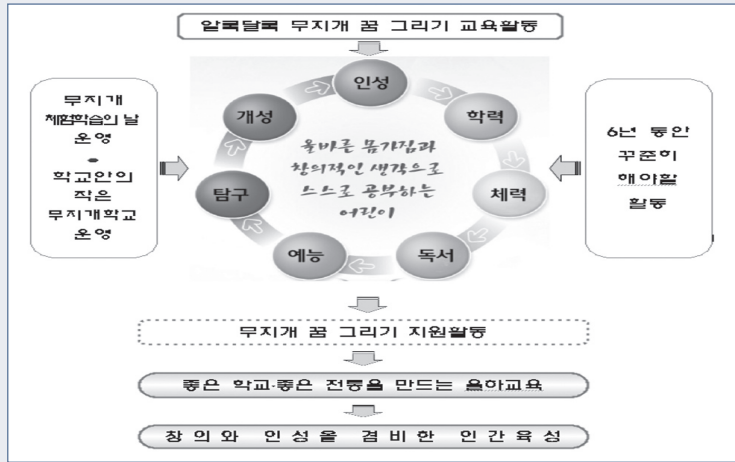
김해 장유 신도시에 위치한 율하초등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이다. 신설학교라 짧은 역사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누적된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인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하얀 도화지에 알록달록 무지개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학교교육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 학부모와 학교교육과정의 질 제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학교장, 교사들이 율하교육 공동체로 한마음이 되어 좋은 학교, 좋은 전통을 세우기 위해 힘써왔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가 되기 위해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노력한 결과 2010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지정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 경상남도교육청지정 학교자율화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율하교육, 비전을 말하다 -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

학교는 무엇 교육과정으로 말하고, 학교교육과정은 교육철학, 학교상, 학생관, 교육 목표 등 그 기저가 튼튼해야 학교교육과정이 나래를 펼 수 있다. 율하초등학교는 함께 하는 좋은 학교, 함께 만드는 좋은 전통을 목표로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며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를 율하교육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란 아이들이 존중받고 마음껏 뛰놀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며, 기초와 기본을 위하여 스스로 공부하여, 제 각각의 빛깔을 키워나가는 학교를 뜻한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무지개학교 개념도〉

3.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할 무지개 꿈 그리기 교육활동

올하어린이가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할 활동을 선정하고, 이의 중점적 운영을 통하여 기초와 기본을 다지고, 제 각각의 빛깔을 키워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할 활동 선정·운영〉

알록달록 무지개 꿈 그리기 교육활동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할 활동 운영	비고
인성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실천 · 속닥속닥 ‘친구의 방’에서 꿈과 우정 가꾸기 · 올하어린이 바른 생활 약속 지키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실천 · 생활지도를 통한 실천 유도 · 모범 어린이 표창	연 1회 이상
학력 *자랑하고 싶은 학습장 쓰기 · 재미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학력 다지기 ·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한 통지표 양식의 전산화	*자랑하고 싶은 학습장 쓰기 · 교과시간 활용 창의적 학습장 쓰기 지도 · 자랑하고 싶은 학습장 쓰기 대회 실시	학기별 연 2회
체력 *아침 10분 운동으로 건강한 몸 가꾸기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줄넘기 인증제 · 체육 동아리 클럽 운영	*아침 10분 운동으로 건강한 몸 가꾸기 · 매일 아침활동 시간 활용(08:40 ~ 08:50) · 학급별 자율적인 운동종목 선정	학급별 계획
독서 *생각을 키우는 책 읽기 수첩 가꾸기 *삶을 가꾸는 무지개 꿈 글쓰기 · 교양을 넓히는 율하 독서 인증제	*생각을 키우는 책 읽기 수첩 가꾸기 · 개인별 책 읽기 수첩 준비 · 읽은 책 제목 및 느낌 간단히 기록 *삶을 가꾸는 무지개 꿈 글쓰기 · 개인별 무지개 꿈 글쓰기 공책 준비 · 학급별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글쓰기	도서실 활용
예능 *내가 외운 동시, 내가 부른 동요집 만들기 · 1인 1악기 연주 활동 · 상설 표현 및 전시활동의 장 운영	*내가 외운 동시, 내가 부른 동요집 만들기 · 시 낭송으로 아침 열기에서 외운 동시 기록 · ‘동아리별 동요 부르기’에서 부른 동요 기록 · 시 낭송 대회 실시 · 동아리별 동요 부르기 대회 실시	연 1회 전시회
탐구 *자유탐구 프로젝트 활동 · 토요일 무지개 체험 활동 · 학년별 각종 토론회 운영	*자유탐구 프로젝트 활동 · 개인별, 동아리별 자유탐구 주제 선정 ·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자유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	학기별 연 2회
개성 *작은 무지개 학교 운영 · 동아리 활동 강화 ·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작은 무지개 학교 운영 · 여름, 가을 계절학교 운영 · 전시·공연·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연 1회

1) *표는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할 활동임.

4. 창의와 배려를 실천하는 무지개 체험학습

◆ 무지개 체험학습은?

- 자연체험, 생활체험, 예술체험, 역사체험, 문학체험 등 체험중심의 활동 프로그램
- 학년군별 순환·이동수업, 토요일 전일제(3시간) 운영
- 1학기 5회, 2학기 7회, 총 12회(36시간) 운영할 수 있는 36개 프로그램 개발

가.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 주제와 특별활동의 유사 활동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통합 운영하였다.

영역	창의적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비고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	영역	시수	
학교특색 교육활동	무지개 체험활동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활동 • 적응활동 • 계발활동 • 행사활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특활 통합운영(재량2 + 특활1) • 토요일 3시간 운영 • 1학기 5회 • 2학기 7회

나. 학년군 및 활동그룹을 조직하여 순환제 이동수업 실시

학년군	학급수	학생수	활동그룹 (명)	프로그램수		소속교사(명)	비고
				1학기	2학기		
1·2학년	7	205	8(26)	5	7	1, 2학년 담임 및 영양교사(8)	1~3교시
3·4학년	6	174	7(25)	5	7	3, 4학년 담임 및 영어전담(7)	2~4교시
5·6학년	5	161	7(23)	5	7	5, 6학년 담임 및 보건, 체육전담(7)	1~3교시

다. 무지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1학기 5회, 2학기 7회, 총 12회(36시간) 운영할 수 있는 3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학년군	학기	프로그램명	장소	담당교사
1~2 학년	1	탁본으로 남기는 우리 학교 역사	1-1교실 운동장	최진숙, 윤정원
		율하천 생태 탐험	율하천	김은재, 홍성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밭대피리, 돌피리 만들기)	형격학습실	김수빈, 류태경
		급식소 투어 및 음식 만들기	급식소	김복남, 정라영
		민속놀이 한마당	운동장	12학년 담임교사, 정라영
	2	역사로 떠나는 여행	유적공원	최진숙
		팝업북의 세계	1-3교실	김은재
		우리 장단 즐기기	1-2교실	윤정원
		전래놀이	운동장	홍성화
		몸짓 탐험 대작전	체육관	김수빈
3~4 학년	1	한국의 빛깔을 찾아서(천연염색)	2-3교실	류태경
		음식 만들기	급식소	김복남, 정라영
		생활용품 만들기(꽃병 만들기)	3-1교실	정민혜
		물속 종물의 한 잎이 관찰	율하천	김규용, 백금선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김치 담기)	3-3교실	전영희, 전춘배
	2	영화 속의 클래식 이야기	시청각실	이광호, 이해경
		Fun & Talk English	영어학습실	오성경

〈무지개 체험학습 프로그램 조직 현황〉



율하천 생태탐험



탁본으로 남기는 우리 학교 역사

5. 계절별 학교 안의 작은 무지개학교 운영

◆ 학교 안의 작은 무지개학교는?

- 창의적이고 예술적 체험을 중시하는 전시·공연·체험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절학교
- 여름 무지개학교 : 여름방학 시작전 1주일간 체험, 노작, 답사, 전시, 발표, 캠프 등
- 가을 무지개학교 : 율하 축제(1주일간), 공연, 전시, 발표 축제
- 여름 무지개학교 실적 : 전시 프로그램 14개, 공연 프로그램 12개, 체험 프로그램 23개 총 49개 개발

가. 운영 원칙

-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 전시·공연 프로그램 중 한가지를 택하여 무지개학교 기간 중에 숙련하고 발표
- 전시·공연 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소수 특기 학생 발표를 지양하고 모든 학생에게 발표 기회 제공
- 담임교사 외 전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외부강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나. 운영 기간

- 여름 무지개학교 : 7. 15(금) ~ 7. 20(화) 일주일간
- 가을 무지개학교 : 11. 29(월) ~ 12. 4(토) 일주일간

다. 운영 조직 - 가을 무지개학교(예시)

학년군	학급수	학생수	담당 교사	비 고
1·2·3학년군	10	316	소속교사 13명 외 외부자원인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자원인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전시가 공연 프로그램 수 보다 많지 않도록 학년군 내에서 조정
4·5·6학년군	8	269	소속교사 9명 외 학교장, 외부 자원인사 4명	

라. 운영 방법 - 가을 무지개학교(예시)

	11.29(월)	11.30(화)	12.1(수)	12.2(목)	12.3(금)	12.4(토)				
1교시	전시·공연 프로그램 활동				학급 활동 (일반수업)	수업공개 전시 공연 발표회				
2교시										
3교시										
4교시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체험활동
5교시							①	②	③	④

- 전시·공연 프로그램 중 택 1 : 3시간 X 4일 = 12시간 활동
- 체험활동 프로그램 택 4 : 2시간 X 4종 = 8시간 활동
- 수업공개·공연·전시 발표 : 12. 4(토)

마. 프로그램 개발

- 전시프로그램 : 재미있는 창의미술, 지끈공예 등 26종
- 공연프로그램 : 치어댄스, 모듬북 연주교실 등 26종
-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뉴스포츠 등 체험 프로그램 45종



지끈공예



사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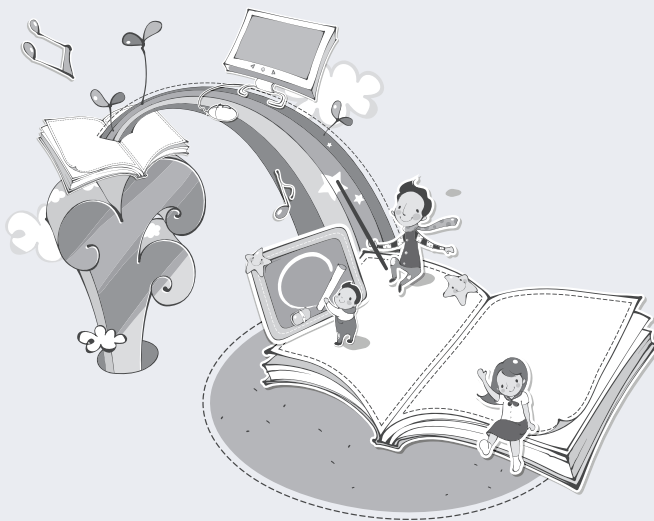
수화 공연



영어연극 공연

6. 나가며

짧은 학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 좋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공유를 이끌어 내고,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결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앞으로 본교가 추진한 교육활동들을 더욱 개선·보완하고 발전시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산청선비교육



강 해 영
산청초등학교 교장

I. 산청선비교육의 필요성

산청선비교육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상의 얼과 지역사회의 선비정신 중 이상과 탐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산청선비교육’의 슬로건 아래 건강, 인성, 창의교육으로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의 리더가 탄생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실천하였다.

1. 산청선비교육을 위한 준비

가. 실태분석 및 교육과정 시사점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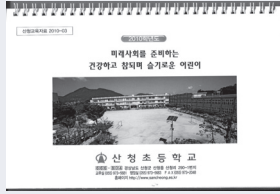
본교는 6년간 교육실습협력학교로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실수업방법개선과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에 관심이 많다. 소외계층 학생이 많아 학력 우열의 차가 심한 학생들을 위하여 창의성계발과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수와 학교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홍보를 하게 되었다.

나. 산청선비교육 설계과정

학교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구성(‘09. 12) → 교육공동체참여실태분석(‘09. 12) → 교육과정워크숍 ‘09. 12 ~ ‘10. 1 무주일원) → 창의·인성교육과정 연수(‘10. 2. 18) →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협의회 → 학사달력 제작배부 → 1학기 교육과정 분석(‘10. 6. 5 ~ 7. 10) → 1학기 교육과정운영 평가회(‘10. 7. 16 ~ 17)



2010. 교육과정 워크숍



2010. 학사달력



2010. 1학기 평가회

II. 산청선비교육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1.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재구성

- 인성교육 : 도덕 2시간 증배, 사회 3시간 증배, 도서실 활용학습 국어 2시간 배당, 독서교육 강화 1 ~ 2학년 국어 5시간 증배 운영
- 창의성교육 : 1 ~ 6학년 과학교과 교과 내, 교과 간 재구성, 거북선 창작만들기, 자유탐구학습을 위해 3 ~ 4학년 과학수업 5시간 증배 운영
- 건강교육 : 강사포제 도입, 1 ~ 4학년 무용 주 1시간, 스포츠 강사활용 1, 2, 5, 6학년 체육 전문 수업 실시

〈인성, 창의, 건강을 위한 교과 관련 재구성 운영〉

구분	시수증	교육과정 편성	시수증배 시 활용 고재 및 단원재구성 방안	비고
국어	+5	독서교육 강화 시수 증	* 독서교육전일제 운영 * 기초 기본 교육 강화, 독서를 통한 인성지도	1 ~ 2년
도덕	+2	효행교육 강화 시수 증	* 부모님께 편지 쓰기, 친구사랑 주간행사	3 ~ 4년
	+2	선비교육 강화 시수 증	* 선비학당 야영수련활동(특활과 통합하여 운영) * 선비체험학습(1박 2일)	3 ~ 6년

2. 창의·인성·건강교육 통합운영

- 인성교육(도덕, 특별활동) : 공수인사와 죽비를 활용한 생활지도, 선비체험학습, 이레마을 봉사활동 4~6학년 1시간 운영 - 교과 요소 추출 선비덕목(용기, 신념, 이상, 의지, 애교, 자주, 탐구, 개척, 예절)을 추출하여 교과와 관련 지도
- 창의성교육(교과, 재량 통합) : 전교생 재량발명 주 1시간씩, 사이버 발명교실, 호주 원격화상수업 5~6학년 주 1시간씩, 영어 캠프(1박 2일) 운영
- 건강교육(체육, 특별활동 통합) : 1080 건강즐넘기 주 2시간, 지리산 둘레길 걷기

〈주제별 통합 운영 시수〉

주 제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활동 내용 및 주제	시수	영역 및 내용	시수
창의성 교육	• 창의성 계발교육 강화를 위한 발명교육	30	• 발명대회 참가 • 거북선 창작만들기 대회	3
발명교육통합운영 (재량, 특활)	• 발명의 날 행사 • 발명 캐릭터, 상상화 그리기	4	• 발명의 날 행사 활동 • 발명 상상화 그리기	2
효행교육(교과, 특활)	• 효행 체험의 날(토요휴업일)	1	• 친구사랑주간 행사 • 부모님께 편지쓰기	2
봉사활동(교과, 특활)	• 환경체험학습(사회)	2	• 이레마을 봉사활동	2
문화체험학습(재량, 특활)	• 지역 문화유적지 견학(사회)	3	• 선비문화체험학습	

Ⅲ. 산청선비교육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내용 및 성과

1. 글로벌 리더를 위한 산청선비교육

본교 교육목표인 미래사회를 위한 건강하고 참되며 슬기로운 어린이로 키우기 위하여 다음의 7가지 창의·인성교육을 운영하였다.

가.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교 산책로, 생태 연못, 야생화 동산 등의 생태학습의 장 제공과 웰빙화장실로 청결하고 건강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자연 보호 의식을 고취시켰다. 대한민국 아름다운학교 벤치마킹 제2호 인증,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아서’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였다.

나.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스포츠강사, 강사풀제)과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1080 건강줄넘기로 체력 보강, 비만과 구강보건교육, 바른 식습관 지도 등을 활용하여 건강다지기를 실천하여 줄넘기 달인(31%), 금달(10%), 은달(15%), 동달(17%), 종합체육대회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선비문화체험교육

지역사회와 가족 공동체의 연계된 선비교육으로 선비문화 체험학습, 전교생 공수인사, 준비활용 생활지도를 통해 공손한 마음, 효행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심을 함양하여, 체벌 zero 학교, 폭력 zero 학교, 욕설 zero 학교를 이루었다.



선비문화체험 (정신합양)



공수인사지도



준비활용 생활지도

라. 좋은 책 읽기의 생활화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간식 독서 시간, 작가와의 만남,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독서습관 정착과 정서순화, 인성 교육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침간식 독서시간 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전교생이 연중 아침 20분 동안 독서·논술 실력을 함양하였다.



아침간식 독서시간



독서왕 배지



사제동행 책방나들이

마. 실력쑥쑥 학력향상 프로그램

기초 학습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맞춤형 학력 프로그램(반딧불이 선비공부방, 계절학교, 주말학교)과 방과후 학교 보충교실, 엄마품 멘토링, 경남사이버 가정학습(새미학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09, 2010 학력향상우수학교(경남)로 선정되었다.



반딧불이 선비공부방



계절학교 학습장



엄마품멘토링(독서논술지도)

바.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

영어체험실, 영어화상실 등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영어전담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전문인력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며, 호주원격화상 교육으로 현지인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영어교육이 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였다.

사. 창의력 쑥쑥 발명교육

본교 특성화 교육으로 '에디슨 발명발전소'를 열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탐구심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발명동아리 활동, 전교생 매주1시간 발명재량활동, 발명 행사 운영, 발명 계발활동, 방학 중 발명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 발명장학생 선정, 국제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 한국대표(2팀 14명), 전국거북선창작경연대회 대상과 단체상 등 152명, 제32회 경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외 7명, 전국 거북선창작경연대회 3년 연속 최우수단체상, 특허청선정 5년연속 우수발명교실, 2010 발명의 날 학교표창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창의적재량활동교재자체 제작



창의력 올림피아드



발명발전소 동아리활동

2. 산청선비교육을 위한 교원·학부모 역량 강화글로벌리더를

교원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습지도연구대회, 1인 1수업 모형연구(프로들의 교실수업 책자 구안), 각종 연구·연수활동, 사도장학회, 봉사활동,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사표가 되었고,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지원 참여사업, 다양한 학부모 연수 등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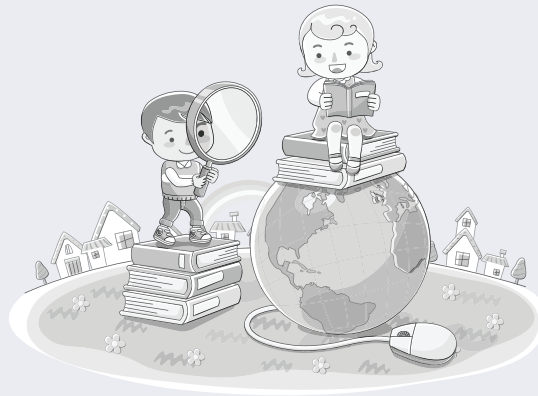


학부모교실

IV. 더 나은 산청선비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공수인사와 죽비활용 생활지도를 학교 전통으로 계승하고, 창의성교육을 위하여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며 발명동아리의 외부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비교육의 실천을 통한 인성과 창의, 그리고 건강한 산청 어린이의 모습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의 탄생이 예견된다.



도전과 배려의 청량 6대 프로젝트로 창의적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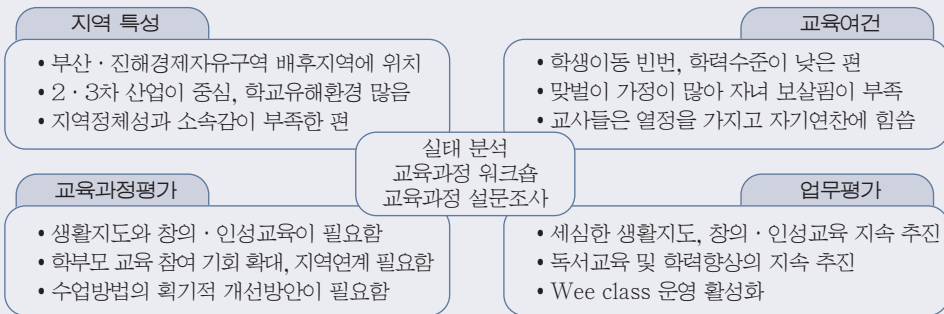
김기환
진해 안골포중학교 교장

1. 함께 만들어가는 청량 6대 프로젝트¹⁾

학교 교육의 근본은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에 마주치게 될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 키워주는 창의·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은 바람직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미래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본교는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학교여건 분석 등을 반영하여 전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 학교 여건 분석

학교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 학교 여건의 분석과 2009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평가 결과를 201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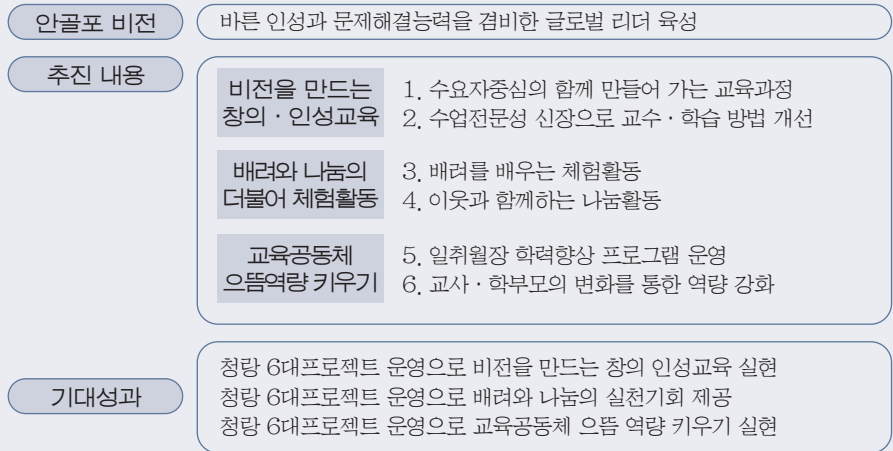


1) 본교는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대승을 거둔 안골포해전의 격전지인 안골포에 위치하며, 청량 6대 프로젝트를 통해 안골포의 푸른 파도처럼 힘찬 기상을 배워, 비전을 품고 도전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2. 안골포 교육비전 수립 및 학교 교육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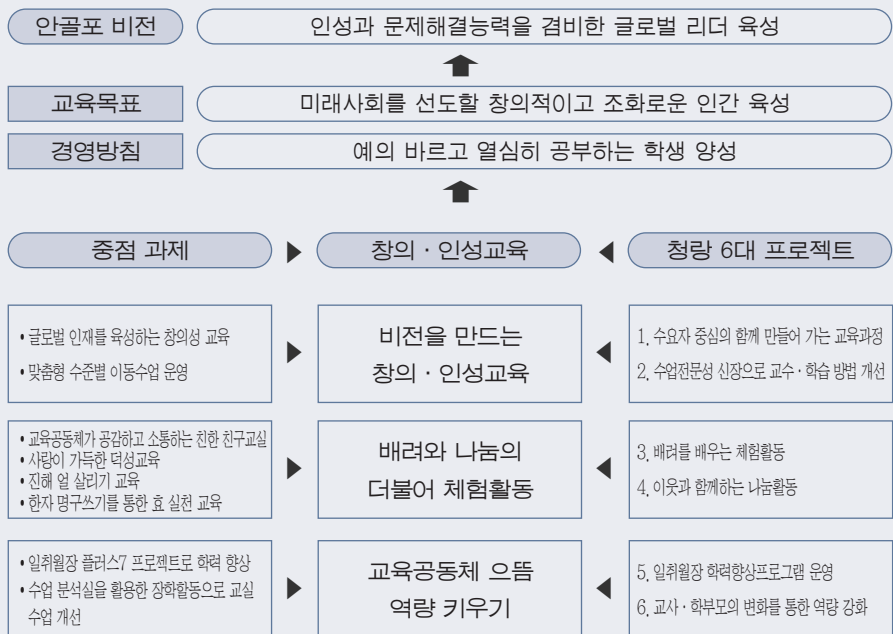
본교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운영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움에 도전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 비전과 학교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가. 안골포 교육 비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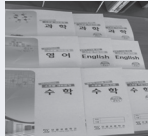
나. 학교 교육목표 설정 및 청량 6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 설정

본교의 중점과제와 특성화 교육활동을 창의·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도전과 배려의 청량 6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II. 청량 6대 프로젝트 운영

1. 비전을 만드는 창의·인성 교육

운영 내용	운영 실적	향후 계획
<p>프로젝트1 : 수요자 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분리 교육과정 운영 • 교과시수 순증 및 집중이수제 운영 • 수준별 사이드북 제작 및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 스스로 엮어가는 알짜배기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시간 독서, 한자명구쓰기, 영어듣기 실시 • 7교시 자기주도학습 시간, 반딧불공부방 운영 ●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창의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이후 수학·과학 영재학급(2·3학년 20명) 운영 • 창의·인성교육 실시(미술과 중심, 전 교과) ● 감성 공간, Wee class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 4건 운영, 1일방문자 80여 명 • 개인상담(205건), 집단상담(169건), 학부모상담(23건) 실시 • 심리검사 917명 실시(NEO성격검사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교육과정 설명회 수준별 사이드 북 창원신문 보도 (2010. 06. 17) 아침 독서시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시수 순증, 집중이수 운영 ● +2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 ● 영재학급 운영 ● Wee Class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교과 창의·인성 교육 실시
<p>프로젝트2 : 수업전문성 신장 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분석실을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중등학습지도연구대회 8명 입상(2010.06) ● 열정과 사랑으로 보듬는 선생님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상담(생활)협의회로 공동사고 모색 • 직무연수 46명 이수, 교사전문영역 자율연수 실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수업 녹화 장면 장학월보 2010년 6월호 경남매일신문 (2010. 06. 22) 상담(생활지도) 협의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분석실 활용 장학활동 활성화 ● 학년별 상담사례 연구 실시

2. 배려와 나눔의 더불어 체험활동

운영 내용	운영 실적	향후 계획
<p>프로젝트3 : 배려를 배우는 체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량리더십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학생회임원 37명, 1박2일, 진해청소년수련원 실시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 310명과 교사13명 참여, 2박3일(200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동네 수련활동 계속 실시

<p>프로젝트3 : 배려를 배우는 체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 체험의 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추석에 효 체험 및 보고서 작성(전교생) ● 청소년의 기상을 온누리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연맹, 파라미타, 우주소년단, 241명(745명) 활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청람리더십 캠프 꽃동네 수련 및 봉사활동 RCY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학교와 연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p>프로젝트4 :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Clean day, 바다정화활동, 1교 1복지시설 봉사 ● 지역 상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골포 상담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활동 참여 ● 진해 얼 살리기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고장 문화재지킴이 활동, 내 고장 사진전 운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바다의 날’ 해양 환경정화 활동 1교1복지 시설 봉사 내고장 사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 개발 ● 지역 상담네트워크 활성화

3. 교육공동체 으뜸 역량 키우기

운영 내용	운영 실적	향후 계획
<p>프로젝트5 : 일취월장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ST학습전략검사 759명 실시-심층상담70명 • 개인별 일취월장카드 정보 누적 ● 일취월장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학업성취도결과 기초학력미달률 3.09%로 0.19%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취월장프로그램 지속 추진
<p>프로젝트6 : 교사·학부모의 변화를 통한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3C's를 통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학교 견학, 자기장학 활동으로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2010 교육연구대회 20여명 참여함 ●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운영, 자녀동반체험활동 2회 93명 참여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도서관도우미, 샤프론봉사단 운영 ● 꿈을 엮어가는 행복한 부모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설명회, 진학설명회 2회, 명사초청강연 2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부신금명중 견학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명사초청강연회 창원신문 (2010. 04. 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3C's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Choice, · 도전Challenge · 변화Change ● 학부모 역량강화 노력 지속 추진

4. 창의·인성교육 평가시스템 강화

운영 내용	운영 실적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를 주도하는 평가시스템 운영 ● 수준별 세트 문항 출제를 통한 맞춤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논술)형 평가문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교과 서술(논술)형 반영비율 30% 이상 실시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분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자기주도학습시간이 증가함. ● 수준별 세트문항 출제를 통한 맞춤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과학·영어교과 실시, 자신감과 문제해결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서술형 평가 반영 비율 40% 이상 확대 ● 수준별 세트문항 출제 확대 실시

Ⅲ. 청량 6대 프로젝트 운영 성과

<p>비전을 만드는 창의·인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8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학부모: 71.8%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p>▷ 학생, 학부모 모두 '비전을 만드는 창의·인성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p>
<p>배려와 나눔의 더불어 체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63.9%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학부모: 7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p>▷ 학생, 학부모 모두 '배려와 나눔의 더불어 체험활동' 실천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p>
<p>교육공동체 으뜸 역량 키우기</p>	<p>교사 학교 만족도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7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학부모: 7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p>▷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공동체 으뜸 역량 키우기 교육' 활동에 만족도가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만들기: 만족 69.4%, 보통 19.6%, 불만족 11% ● 더불어 체험활동: 만족 85.4%, 보통 13%, 불만족 14.6% ● 으뜸역량키우기: 만족 66.9%, 보통 21.8%, 불만족 14.3% <p>▷ 교사의 학교 만족도가 높았으며, 더불어 체험활동 > 비전 만들기 > 으뜸 역량 키우기 순으로 나타남.</p>
<p>창의·인성교육 평가시스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2009학년 대비, 30분이상은 -20%, 1시간이상은 +13.2%, 2시간이상은 +5.5%, 3시간이상은 +1.3%로 전체적으로 증가함. <p>▷ 서술형 평가문항 확대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분리 운영, 수준별 세트문항의 출제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가정에서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증가함.</p>

줄탁동기[啐啄同機]¹⁾로 빚어낸 지역연계 체험활동



양 영 오
통영고등학교 교장

I. 들어가며

1. 창의·인성 교육의 필요성

우리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활동 공간이 더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고 다원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과 ‘인성’이다. 창의성은 복잡한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인성은 나와 타인을 엮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교과활동과 방과후 활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실천 과제를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에 두었다.

2. 체험 활동의 의미

‘체험(體驗)’이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을 말한다. ‘체험활동’은 현장에서 자기 신체를 통해서 체험하는 활동으로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시키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체험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 협동심을 기르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히게 된다. 삶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며, 이는 책으로는 불가능하다.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그 만큼 삶이 깊고 풍부해진다.

본교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지닌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게 하였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1)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계란껍질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

II. 줄탁동기로 빚어낸 지역연계 체험활동

가. 1학년 소풍 - 테마로 가는 가을 소풍

통영 시내의 다양한 문화 유적과 문인들의 흔적, 통영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감으로써 평소 일상에서 스쳐가던 통영의 요모조모를 살펴보고 느껴봄으로써 통영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고, 알아봄으로써 통영에 대한 애향심을 키운다. (통영 시내 탐방 / 통영 문학 기행 / 통영 전설을 따라 삼천리 / 동피랑 짚지체험관/ 통영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 '모자야, 게 셋거라.')

〈1학년 8반 통영의 아름다운 찰나 담기〉



나. 2학년 가을 소풍 - 이충무공 해상 전적지 순례

2학년은 통영시와 청소년연맹과 연대하여 이충무공 해상 전적지 순례의 일환으로 한산대첩의 현장인 통영·한산도 한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치는 항해 체험을 하였고, 한산도 제승당 참배를 통해 이충무공의 얼을 기렸다.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도민 탄원엽서쓰기와 서명 운동

2학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도민 탄원엽서쓰기와 서명 운동을 토요일 자치활동 시간에 실시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 엽서 내용(학생의 글)

000 의원님께 / 너무 슬쁩니다. 슬픈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긴 세월을 할머니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고 살았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슬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의 작은 용기가 바다 건너 끔찍하게 살아 가시는 위안부 할머니들께겐 마음 편히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일본 의원들이 앞장서서,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통영고등학교 김00 올림

라. 우수 동아리의 주요 활동 내용

1) 미술동아리 ‘챌린지’

- 통영 출신의 젊은 미술가 최한진 선생님의 첫 조각전에 가서, 작가와의 만남을 가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영의 작은 언덕 마을 ‘동피랑’을 벽화 작업으로 예쁜 색의 옷을 입혔음



통영 출신의 화가와의 만남



통영 동피랑 벽화 작업

2) 향토지리지조사반 - 통영 체험 보고서 쓰기

꿀빵의 유래 / 원조 ‘오미사 꿀빵’ / 윤이상을 찾아서 / 어린시절 음악의 영감, 음악의 뿌리 통영 / 아버지이자 애국자인 윤이상 / 영원히 기억 될 윤이상의 뜻



‘꿀빵의 원조VS 신조’ 보고서



‘윤이상의 발자취를 따라서’ 보고서



3) 수학동아리 프랙탈 - 소개삼 캠프

2010년 창원대학교 수학 체험전 / 제3회 소개삼 캠프 참가/ 소개삼 캠프는 한산면 문어포 어촌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졌는데, 별모양 다면체 만들기 등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을 하고 돌아옴.

4)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FBW- 통영의 문인 박경리 묘소 및 기념관 탐방

박경리 기념관에서의 독서 토론 / 기념관 견학 / 묘소에서의 묵념 / 월 1권 이상의 책을 읽고 토론 / 서점에서 하루 살아보기 프로젝트



수학동아리 프랙탈 활동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FBW



마.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1) 한산대첩제 군점 참여

통영의 축제인 제 49회 한산대첩제 군점과 퍼레이드 행사에 본교의 학생들이 조선 장군과 수군 복장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뿌리와 한산대첩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 49회 한산대첩제 군점과 퍼레이드에 참여

2) 청소년 글로벌 탐방단 - Bridge To the World (BTW)

통영시에서 주최한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본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해외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통영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3) G20. 모의 유네스코 총회' 본교 학생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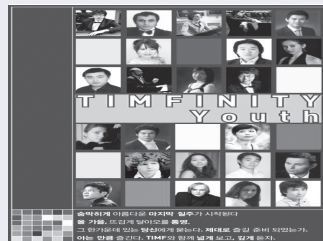
'201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Model UNESCO Conference)' 제2차 회의에 본교 2학년 학생 3명이 참가하였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예방, 완화, 적응을 위한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고 전 세계의 청소년이 공유해야 할 비전을 교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G20. 모의유네스코 총회 학생 참가

4) 통영국제음악제의 'TIMFINITY Youth' 1기 참가

'TIMFINITY Youth'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신개념 글로벌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문화, 소양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활동으로 통영의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행사 포스터

Ⅲ. 나가며

체험활동은 준비하는 과정,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 등의 단계가 있다. 체험활동 참가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세심한 준비를 하여 그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가 되어야 한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계란껍질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 어미닭이 부화시기를 잘못 예상해 알을 성급하게 쪼아 껍질이 깨지면 새끼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세우고 있다가 병아리가 안에서 쪼기 시작하면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 청소년기는 껍질을 깨고 비상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새롭게 태어나려는 청소년에게 바깥에서 함께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택하도록 돕는 어미닭이 되어야 한다. 귀를 쫑긋이 세우고 너무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도록 말이다.



톡톡톡 말문이 열리는 영어



김 양 자
창원 호계초등학교 교사

1. 톡! 말문을 열며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로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 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음성 언어 교육이 주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 첫째, 능력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하고,
- 둘째, 다양한 반복학습으로 말하기에 자신감을 기르게 하고,
- 셋째, 즐거운 게임 활동으로 영어 공부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톡톡! 말문을 열기 위한 차시별 활동

1. 1·2차시 말문을 여는 시도 - 들려야 말할 수 있다

- 가. 듣는 즐거움 - 학생들이 "One more time!"을 외치도록 유도하라
 - 1) 1단계 : 전체 대화글 듣고 모둠별로 종이 한 장에 모둠장이 기록하기
 - 2) 2단계 : 종이 한 장에 함께 기록하기-서로 앉은 방향에서 기록하기
 - 3) 3단계 : 각자 메모지에 기록하고 친구가 발표할 때 확인하기
 - 4) 4단계 : 대화글 듣고 순서에 맞게 모둠원이 협력하여 대화글 배열하기
 - 5) 5단계 : 대화글 순서대로 배열하고 역할 나누어 읽기

나. 말문이 톡톡-그날 배운 문장은 그 시간에 덩어리째 마스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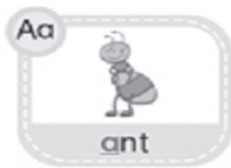


Lesson 7, I like apples(2/4)	
대화글 (매 차시마다 3가지 제시)	무한지도 방법 예시
① Minsu: I like lunch time. Tomas: Me, too.	• 모둠을 홀수로 구성하여 한 모둠씩 민수와 토머스로 나누어 리듬에 맞춰 반복 연습하며 익힌다.
② Tomas: Do you like bananas? Minsu: Yes, I do.	• ①의 방법으로 두 번째 문장을 익힌다. • ①, ②를 합쳐 4문장을 익힌다.

2. 3차시 말문을 여는 시도 - 함께 만든 대화글 자신감을 키운다

가. 상상의 즐거움-Look and speak의 동작을 활용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라

- 1) 소리 제거 기능을 활용하여 동작만 보여준다.
- 2) 모둠별로 협력하여 대화를 만든다.
- 3) 만든 대화로 역할을 나누어 말하게 한다.

나. 읽기의 무한 반복-게임과 함께 무한 반복 즐기기

Lesson 9. I Have Two Pencils(3/4)		
Read and Write(3/4) 그림과 단어		
		
<p>1단계) 4박자에 맞추어 단어 읽기를 한다. 1박(책상), 2박(손뼉), 3박(오른손 엄지), 4박(왼손) 2단계) 모두 4번씩 ant/ant/ant/ant/ 4박자에 읽는다.(학생들이 제일 쉽게 따라 한다.) 3단계) 모두 2번씩 3, 4 박자에 책상(1박), 손뼉(2박), 오른손 엄지(ant), 왼손 엄지(ant)</p>		

3. 4차시 말문을 여는 시도 - 역할극은 연습이 좌우한다

가. 역할극 100배 즐기기-역할극은 연습이 중요하다.

- 1) 역할극을 듣고 따라한다.
- 2) 정지 기능을 사용하여 한 문단씩 따라 한 후 모둠별로 문장별 실연을 한다.
- 3) 가장 실감나게 따라서 하는 모둠에게 보너스 점수를 준다.

나. 학생들 수준에 맞게 역할극에 간단한 문장을 추가하게 한다.

3. 톡톡톡! 말문이 열리게 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되풀이다

반복학습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닐 때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반복인 줄 모르고 할 때 학생들은 스스로 그 곳에 빠져들게 된다. 교육에 왕도가 없듯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비법 또한 정해진 것은 없었다. 여기에 활용한 방법은 영어시간에 학생들과 즐겁게 말하는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완성한 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그림책에서 찾은 재미있는 수학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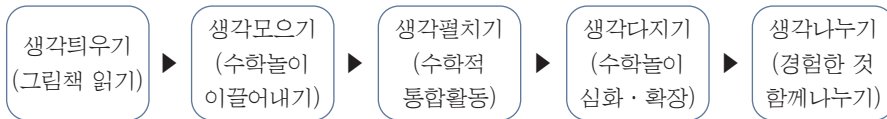
신 승 화

거제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1.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학놀이란?

그림책을 읽으며 알게 된 수학적 개념을 음악, 언어, 신체활동, 조형활동, 게임, 극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경험해 보도록 전개하여 유아들의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구안한 통합적 활동이다. 그림책의 선정은, 다양한 수학적 문제해결의 모색을 가능케 하는 내용인 것, 생활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유아의 흥미에 적합하고 삽화나 언어표현에 심미적 가치가 있는 그림책을 선정한다.

2. 활동의 전개



3. 수업 적용의 예

그림책 단계	모자사세요(시공주니어, 1999)	
생각 튀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읽어주는 『모자 사세요』동화 듣기 교실내의 독서코너에 비치된 그림책을 스스로 읽어보며 동화에 흥미를 느끼고 내용을 이해하기 	<p>『모자사세요』 그림책 읽기</p>
생각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찾아 유아의 경험,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 구상 	<p>주변에서 패턴 찾기</p> <p>우리는 패턴 탐험대</p>

<p>생각 펼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이 포함된 통합적 수학놀이 활동을 전개하기 (수놀이, 조작, 음악, 언어, 신체활동, 조형, 게임, 극놀이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수집한 모자 분류하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자로 패턴 만들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좋아하는 모자 색깔 조사하기</p> </div> </div>
<p>생각 다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놀이를 통해 알게 된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심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div style="text-align: right;">  <p>패턴이 있는 모자 만들기</p> </div>
<p>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사세요』 수학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된 것 함께 나누기 <div style="text-align: right;">  <p>내가 만든 모자 전시</p> </div>

4. 활동의 효과

- 유아들에게 친숙한 그림책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수학을 느끼게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 다양한 형태의 유아 중심 수학적 통합활동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 그림책에 내포된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보조 자료의 개발과 활용은 유아의 내면적 흥미를 유발시켜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놀이 활동은 규칙성, 수 개념, 측정, 도형, 통계개념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차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

NEIS

2011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나이스는 분산되어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들을 하나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차세대 나이스의 도입 배경과 특징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호에서 자세히 언급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차세대 나이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정제 및 이관작업에 관해서 일선학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1. 자료이관 관련 사항

- ▶ 자료 이관 시기 : 2011. 2. 19일(토) ~ 22일(화)
 -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료 이관 시기에는 서비스가 중지됨
- ▶ 자료 이관 방식 : 작업은 시·도교육청단위로 일괄 처리하며, 23일부터는 개별 학교단위로 검증 처리
- ▶ 교무업무 이관 자료 범위 : 현재 교무업무시스템 전체 자료
 - ☞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는 2002학년도 졸업자 이후

2. 자료이관 범위

- ▶ 교육과정자료 (편제 및 시간배당, 시간표, 학교일지 등), 학생기본정보
- ▶ 학교일지자료, 성적자료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성적처리 자료 등)
- ▶ 학교생활자료(특별활동, 창의적재량활동, 계발활동 등 누가기록자료)
- ▶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기타자료(학업성취도, 학부모신청/승인내역) 등
 - ☞ 차세대 나이스로 이관된 자료는 학교에서 확인

3. 자료이관시 주의사항

- ▶ 자료이관 시작 전날 18시까지 처리중인 업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 ☞ 상신중인 결재는 완결처리
 - ☞ 전입 요청한 정보는 학적반영까지 완료해야 함
(전출/입시 중간 전송자료는 이관되지 않음)
 - ☞ 졸업업무는 학적반영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이관 전 전출입, 졸업처리, 업무승인 완료하기)
- ※ 자료이관 일자 이후 구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처리한 업무는 차세대 시스템에서 반영되지 않음 (입력작업 금지)
- ※ 자료이관 후 서비스 중지기간 동안 학교일지는 필요 시 소급하여 작성

4. 구 교무업무시스템에서 반드시 완료해야 할 업무

- ▶ 학교생활기록부 검증/반영 및 마감
- ▶ 건강기록부 마감
- ▶ 졸업업무처리/졸업생학적반영
- ▶ 초/중/고 배정자료 업로드
- ▶ 입학자료전송 (기본신상정보/건강기록부 전송)
 - ☞ 졸업생학적반영 이후에도 입학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됨)
- ▶ 초등학교 취학업무 : 동사무소로 부터 넘겨받은 취학대상자명단을 확인하면서 입학>취학관리>취학대상자관리 메뉴에서 본교확인을 [대상/비대상] 선택 후 저장 입학>취학관리>학적일괄생성 메뉴에서 학적생성 버튼 클릭
 - ☞ 교무업무시스템에서의 초등학교 취학업무는 여기까지임

5. 차세대 나이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 ▶ 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권한자료는 자료이관 대상이 아님)
 - ☞ 2010학년도 2학기 담임권한은 자동으로 생성 제공 예정
- ▶ 2011년 교육과정편성 (반드시 새 시스템에서 편성할 것)
- ▶ 진급처리(▶2011년 신입생 입학처리 포함)
 - ☞ 2011학년도 수업학년도 저장 / 반 정보등록 / 진급자 생성 / 개별 반편성 등

6. 업무관리시스템(전자결재)과 연계

학교급 구분	연계장표 (▶업무승인(환경설정 - 결재문서지정) 세팅 시, '내부결재' 항목으로 자동고정 설정 (변경불가)될 예정)	비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상	재학생,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는 오프라인출력)
	졸업학적반영	졸업대상(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는 오프라인출력)
	진급반편성일람표	연계장표 : 명단
	전입/편입/재취학학적반영	연계장표 : 명단
	전출학적반영	연계장표 : 명단
	유예/면제학적반영	연계장표 : 명단
	자퇴/퇴학/제적/휴학학적반영 (고등학교만 해당)	연계장표 : 명단
	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학적반영	연계장표 : 명단
	반변경	연계장표 : 명단
	계열/학과/반변경(고등학교만 해당)	연계장표 : 명단
건강기록부정정대상	재학생,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오프라인출력)	

교육마술로 공부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 정 용

거제외간초등학교 교사

교육마술과의 만남

몇 년 전에 마술 특강을 듣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몇가지 간단한 마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좋아했다. 인터넷에 마술들을 찾아보았다. 교사 마술 연구회 카페도 가입하여 동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았다. 하지만, 마술을 익혀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어렵고 연습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연습을 해도 잘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마술을 놓게 되었다.

그러다가 직속기관 파견 교사로 가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에 진주교육대학에서 교육마술 연수를 받았다. 마술은 힘들고 어려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기억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영 지도 강사의 ‘그냥 마술이 아니라 교육마술입니다’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교육 마술은 쉬워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교육 마술은 교육과 마술이 만난 것입니다’라는 말에 고개가 저절로 들어졌다.

매시간 교육마술을 보여주고 개개인에게 도구를 주었다. 보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해보고, 도구를 집에 가지고 가 복습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록 손재주가 부족해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집에서든, 길에서든, 쉬는 시간이든, 어디서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 보았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면 제법 많이 생각해보았다.

교육마술

교육 마술(Magic for Education)에 대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연구되고 있지만 교육 마술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박근영은 그의 저서 ‘교육마술(2010)’에서 ‘교육마술은 단순히 교육(Education)과 마술(Magic)의 합성어로서, 마술을 이용한 주의집중법이나 발표력, 리더쉽 함양 등의 1차적인 교육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마술 같은 효과나 연출을 통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 하였다.

김택수는 ‘교육을 위한 마술’을 뜻하며, 교육 전문가가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술을 이용한 단순 주의 집중 및 동기



유발을 통하여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술이 지니는 원리 및 연출을 탐구하는 과정을 교육에 끌어들이어 교육 내용과 마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교수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교육마술과 아이들의 만남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교육마술을 적용해 보았다. 먼저 한 것이 아이들의 생일, 요일을 맞추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신기해 하고 즐거워했다. ‘교육마술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원리에 맞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니 더 좋아했다. 쉬우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해보려고 안달이 났다.

얼마가 지나 카드를 통해 나이를 맞추거나 몸무게, 키 등을 맞추는 마술을 보여주었다. 이것 역시 아이들이 부모님과 친구들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것은 마술 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보상으로 하니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좋아졌다. 곱셈과 덧셈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마술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은 어려워 하던 곱셈과 덧셈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아이들은 점점 교육마술을 통해 공부의 주인이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 나갔다.

공부의 주인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발표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었다. 늘 발표하는 친구들만 발표를 하였다. 소규모 학교에서 발표는 큰 의미가 없다.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교육마술을 통해 아이들은 발표를 하고 싶어 했다. 평면 주머니를 통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교육마술, 학생과 교사가 주제에 맞는 낱말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마지막에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낱말 고르기, 체인지 주머니를 통한 학습 정리, 세 줄이나 두 줄 마술을 통한 도덕과나 사회과 등에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교육 마술 등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스스로 그 마술을 연습하였다.

우리 반은 자연스럽게 학예회에서 교육마술을 하였다. 발표는 교육마술의 단계 중 네번째 단계이다. 아이들은 하고 싶어 했다. 나보다 더 하고 싶어 했고 연습을 즐겼다. 학예회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함께 평소 보기 힘든 교육 마술을 펼쳐 보였고 참석하신 학부모님은 학생들에게서 많은 박수를 보냈다. 학예회에 발표한 내용을 가까이 있는 노인 요양 병원에서 한번 더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마술을 통한 교육은 아이들이 공부에 주인이 되어 스스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미술 연구회로 틀을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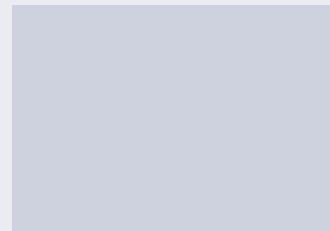
지난 여름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한 [교육미술]를 연수 받은 교사들 중 교육미술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육미술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교사들을 모아 교육미술 연구회를 만들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다.

[교육미술 연구회]는 에듀매직 코리아 대표인 박근영 지도 강사를 중심으로 카페를 통해 1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들을 나누었다.

연구회는 카페를 통해 교육 미술에 대한 이해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나누고, 교육미술의 실천 사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교육미술은 연구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위해 연수 동영상과 개인 연습 동영상 등을 탑재하였고, 연습 후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였다. 또한 교육미술에 필요한 미술 도구를 공동 구매하였다.

연구회는 매월 1회 이상 창원과 진주를 번갈아 가며 OFF모임을 갖고 있다. OFF모임을 통해 새로운 교육 미술을 배우고, 연수나 특강 운영과 카페 운영 방안, 연구회의 방향 및 운영 계획 등을 의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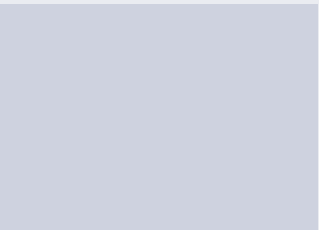
연구회는 박근영 강사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참여한 특수 분야 연수를 준비했으나 기간을 놓쳐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0학년도 겨울방학동안 창원상남초등학교에서 4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2011년 교육미술 연구회 운영 계획에 대해 워크숍을 가지고 2011년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교육미술 연구회에서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개최, 매월 OFF모임, 카페를 통한 정보 교환 및 소통, 임원진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연수후 교육미술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교육미술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여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운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 합창단 이야기



정혜선
거제애광학교 교사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

저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감수성 여린 여고생 때 합창을 하여, 들을 때마다 여고생 때로 돌아가곤 합니다. 손수 교복을 다려 입고 곱슬머리를 누르며 밤새도록 빗질을 하고, 교복치마를 줄여 토요일마다 합창단 연습을 갔고, 짝사랑하던 옆 학교 오빠도 있었고, 어려운 가곡도 배웠으며, 연주회전 합창단 연습을 위해 평소 도망가던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지 않았고, 모의고사 성적도 올랐고,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마지막이 될 뻔했던 무대에서 함께 울면서 합창도 했습니다.

너희가 누릴 문화가 없어서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다던 어느 중학교 평교사셨던 지휘자 선생님의 꿈꾸던 마음이 저의 여고생 시절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를 고민하던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아동들을 만나고 특수교육을 다시 공부하면서, 살면서 언젠가는 합창단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습니다. 졸업 후 바로 특수학교에서 음악교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요. 누구에게나 음악은 즐거운 것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성으로 뽀뽀 뭉친 아이들이지만 음악시간에는 늘 적극적인 친구들입니다. 미션스쿨인 저희 학교만의 특색이기도 한 생일축하예배에서 매주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하며 무대에서 성가대로 합창을 합니다. 제가 지휘를 하는 덕분에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연습 언제하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그리 예쁜 여교사는 아닙니다만 음악을 맡은 덕분에 아이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사.....^^

틈틈이 금요일 마다 성가대 연습도 하고 성가대 친구들을 중심으로 ‘바다를 닮은 아이들’ 합창단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추억을 만

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음악회에서 따라 부르고 함께 즐기는 음악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곡을 짧게 편곡해서 고등학생들이 합창을 했고, 세계 민요 메들리를 함께 합창하고 초등학생들의 귀여움이 맘껏 묻어 나는 의상을 입고 독창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창연주회 후 즐거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이 많지만 그 중 항상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를 말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저 게이트도 배워보고 싶어요, 저 리코더도 연주하고 싶어요.” 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고등학생들이 멋지게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합창을 하던 모습이 부러웠나 봅니다. 합창 연습시간에는 저와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겨 조금 더 어려운 곡에도 도전해보고, 파트를 나누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워서 부르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거나, 외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후렴구만 부르도록 혹은 특정한 가사만 부르도록 해보았습니다. 모인 친구들 속에서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나누어지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했던 고민도 해결이 되고, 가사를 몰라서 성이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 파트를 기다리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음악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좌충우돌 신입교사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만 올 한 해 또 다른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다짐해 봅니다.



수남초등학교 교사들의 '작은 음악회' 이야기



김 용 운
김해 수남초등학교 교장

이야기 하나... 교장 김용운

10월의 기분 좋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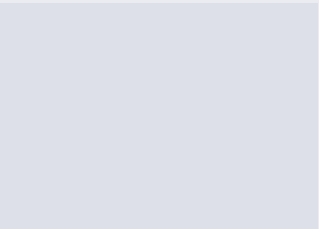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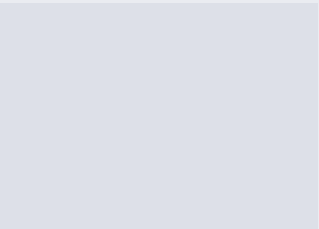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단풍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푸른빛을 뿜어내는 나뭇잎을 보면서 하나의 멋진 영상이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재주 많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연주회' 바로 그것이었다. 생각이 거기까진 미쳤으나 학교의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오후 시간에 간간히 들려오는 선생님들의 플룻과 첼로 소리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의 연주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몇 날을 고민하여 입을 열었다. 우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으니 십여 명이 되었다. 플룻,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색소폰, 거기예다 기타, 드럼까지... 수줍어하고 자신 없어 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가고 없는 시간이 되면 들려오는 연습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12월 17일, 여러 학부모님과 사할린 동포들을 모셔놓고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는 시작되었다. 시낭송을 서두로 하여 짧은 연습 기간 동안 준비한 음악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과 수교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 그 때의 설렘과 벅찬 감동이 다시 밀려오면서 또 하나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테마가 있는 음악회,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회, 바로 그것이다. "우리 수남 선생님들, 미안하지만 이 교장을 믿고 한번 더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 알제?"



이야기 둘... 교사 이정아

2학기의 학교생활이 익숙해질 즈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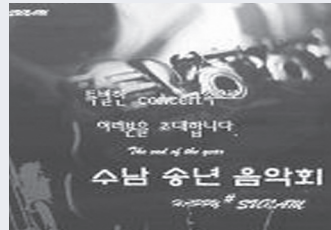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교장실에 모여주세요.” 갑자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해온 메시지를 받고 의아해 하면서 교장실로 내려갔다. 항상 새로운 이벤트(?)로 감동을 선사하시는 교장선생님인지라 ‘또 뭘까?’, 라는 행복한 두근거림이었다. 허걱, 그런데 이번엔 아니다. 교장선생님께선 교사들의 연주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대부분은 학생들의 연주를 지도해본 경험은 있지만 자신이 직접 연주회 무대에 올라선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감이었다.

교장실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이 일을 어쩌나, 큰일 났네, 하며 선생님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탄식을 하였다. 하지만 이내 모여서 클래식과 밴드로 나누고 악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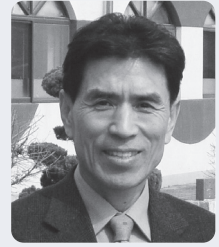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빈 교실에서 연습하는 시간, 선생님들과 모여 음악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어울려 호흡을 맞추는 시간, 처음의 걱정과 달리 하루하루가 점점 기다러지기 시작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학교란 곳이 ‘작은 음악회’로 인하여 생활의 활력소, 내일을 위한 충전소가 된 것이다.

12월 17일,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날이 왔다. 선생님들 손으로 직접 꾸민 무대에서 우리들의 음악회가 열리는 것이다. 힘든 출장으로 몸이 편찮으시지만 긴장된 무대를 녹여주신 교감선생님, 청바지와 나비넥타이의 무대복으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신 멋진 교장선생님,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 또는 함께 연습하여 이루어낸 멋진 하모니를 만드신 선생님들, 정말 감동의 두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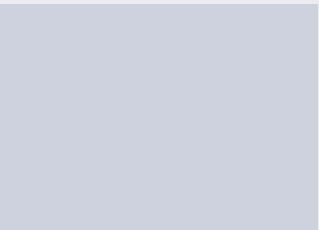
어쩌면 평생 감추어 두고 있을 선생님들의 끼와 재능을 들추어내 주신 분, 교직 생활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 그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교장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학원 한 번 가본 경험 없지만 전교생 영어·한자 자격증 취득



허 순 상
의령 낙서초등학교 교장



1. 이렇게 시작했어요

의령군 낙서면 낙동강변 서쪽에 위치한 본교는 전교생이 25명인 농촌 소규모 벽지학교이다. 학교주변 어디를 둘러보아도 산과 강, 들관, 들판 등 자연 그대로의 청정학교이다. 하우스 작목과 농사일로 바쁜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그래서 학교는 온종일 학교 운영으로 가정의 기능까지 전담하고 있다.

사교육이 전무한 본교의 학생들에게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 못지 않게 영어교육과 한자교육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본교는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3월 초 교육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슬로건으로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특색교육으로 운영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 자율화와 발맞추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맞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2. 이렇게 운영했어요

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고 영어수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3월 초 학교 자체적으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을 함으로써 상대방 나라에 대한 문화, 생활, 환경 등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었으며,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영어발음을 익힐 수 있었으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나. 영어교육과정 운영

영어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및 시간 증배로 주당 26시간을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 1) 정규 영어시간 운영 - 주당 8시간(3~6학년)
- 2) 교육과정 자율화에 의한 시간증배 - 주당 6시간(전 학년 주당 1시간)
- 3) 재량활동 영어시간 편성 - 주당 6시간(전 학년 주당 1시간)
- 4) 방과후학교 영어회화부 운영 - 주당 6시간

다. 방학 중 집중 영어캠프 실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활동적이고 체험중심 영어교육으로 집중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다.

- 1) 여름방학 영어캠프 : 3주간 실시(8월 2일~8월 20일)
- 2) 겨울방학 영어캠프 : 3주간 실시(1월 3일~1월 21일)

라. 생활영어 말하기능력 인증제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의 일상생활을 간단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생활영어 급수별 인증제를 수립하여 매월 해당급수별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1) 대상 : 전교생
- 2) 자료 : 'Daily Life' 제작(총 10급, 77문장으로 구성)
- 3) 급수 판정 시기 : 매월 말일
- 4) 인증서 수여일 : 매월 첫 주 월요일(총 6회 수여)

마. 학년별 필수 영어자료 제작·활용

전교생이 공통으로 알아야 할 단어 및 문장과 학년수준에서 알아야 할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학년별 필수 영어자료를 제작·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의 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어시간 및 아침활동시간, 과제제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 영어 골든벨 실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영어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영어 골든벨을 실시하였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와 협력하여 골든벨 문항을 제작하여 영어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답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쉬운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순으로 출제하여 실시하였다.

- 1) 대상 : 전교생
- 2) 시기 : 6월 29일
- 3) 장소 :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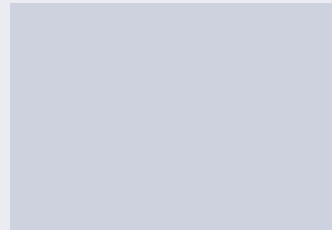
사.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

교내 영어말하기대회 실시계획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사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대상 : 전교생
- 2) 날짜 : 10월 7일
- 3) 장소 : 다목적실
- 4) 참가자 수 : 6팀 22명 참가
- 5) 내용 - 영어동극, 영어연극, 영어 동화구연, 영어말하기 등

아. 방과후학교 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자격증 취득

- 1) 영어회화부(영어자격증반) 운영 - 한국외국어평가원 PELT Jr 자격시험 응시
교과, 재량활동 운영으로 실시한 영어교육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영어회화부에서 영어자격증에 도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실시하는 PELT Jr 자격시험 응시하였다.



- 대상 : 3~6학년 16명
- 시기 : 8월 22일, 12월 11일
- 응시처 : 한국의국어평가원
- 장소 : 창원경원중학교
- 성과 : 3~6학년 학생의 69% 자격증 소지
 - 1차 시험(11명 응시생 중 8명이 PELT Jr 3급 자격증 취득)
 - 2차 시험(2급 응시생 3명 모두 PELT Jr 2급 자격증 취득, 3급 응시생 6명중 4명 PELT Jr 3급 자격증 취득)
 - 3차 시험(2월 20일 응시 예정)

2) 한자부(한자자격증반) 운영 - 한자능력 검정시험

11월 13일(토) 한국어문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국한자능력검정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49회 한자능력 검정시험에 22명이 응시하여 8급 6명, 7급 10명, 6급 3명, 5급 2명, 총 21명이 합격증을 받고 4명의 학생은 우수상과 우량상을 받아 그동안 쌓아온 한자실력을 인정받았다.

자.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

11월 11일(목) 부림저점영어체험센터 주최 영어말하기 대회에 본교 5학년 4명이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비록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를 크게 빛낸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3.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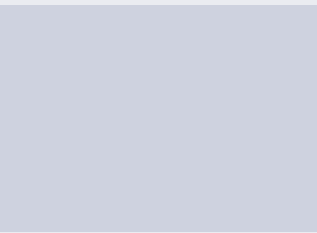
본교는 비록 농촌 벽지 작은 학교이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이 푹푹 뭉쳐 대도시의 여느 학교 못지않은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특색 영어교육으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졌으며,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어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 우리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한자교육으로 학생들의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맞춤교육활동으로 낙서초등학교의 교육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낙서초등학교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 되어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으며 학원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전교생이 영어, 한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의 열정과 학생의 노력 그리고 학부모의 신뢰가 즐겁고 신나며 희망이 있는 학교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거라 기대한다.





백밥을 먹는 즐거움



구 은 복

함안 칠북이령분교장 교사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몇 년 전 김해삼성초등학교에서 박천수 선생님과 동학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김해삼성초등학교는 10반까지 있었고, 현장학습을 갈 때면 1반부터 10반까지 함께 현장학습을 갔습니다. 현장학습을 갈 때 선생님들의 도시락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무 선생님이 그 전날 장을 봐서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박천수 선생님은 9반 담임 선생님이셨고, 저는 10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박천수 선생님은 총각 선생님이셔서 평소 유달리 김밥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총각 선생님을 위해 인심좋은 학년의 총무 선생님께서 현장학습 날 정말 맛있는 여러 종류의 김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장학습 날 점심 시간에 박천수 선생님은 선생님들과 도시락을 먹지 않고, 반의 학생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학생들의 김밥 하나씩을 먹으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맛있다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은 우리 도시락 얻어 먹는다면서 '돼지'라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한참을 보다 보니 학생들에게 저런 말까지 들으면서 맛있는 선생님 김밥을 두고 학생들 김밥을 얻어 먹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음식을 준비하신 총무 선생님이 아쉬워 할 것 같아 제가 살짝 일어나 9반으로 가서 모셔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천수 선생님은 평소 그렇게 좋아하는 김밥이 아닌 흰 백밥과 소시지를 먹고 계셨습니다. 예전에야 소시지가 정말 귀한 음식이었지만 요즘에야 잘 먹지도 않는 소시지와 백밥을 드시는 것을 보고 김밥 도시락 많이 남았다고 가서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백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평소에 매일 김밥 두 줄을 연구실에서 먹으면서도 질리지 않는다고 김밥을 제일 좋아하신다면 선생님이 김밥도 먹지 않고 백밥을 먹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풍을 다녀온 후 연구실에서 현장학습에서 왜 선생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김밥을 함께 드시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은 신규교사인 저를 감동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유달리 밝은 성격의 학생이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어 몰래 살짝 불러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안 계신 그 학생이 언니가 김밥을 준비하지 못해 백밥에 소시지를 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차에서 어떻게 하면 백밥을 싸 온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 선생님이 백밥을 맛있게 먹어 그 학생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들과 밥을 같이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애들 김밥을 하나씩 먹으면서 칭찬을 해주다 백밥과 소시지 학생의 도시락을 하나 먹어보고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 이 밥은 선생님 주고 친구들과 김밥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고선 선생님이 하얀 백밥을 다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백밥이 정말 맛있어 선생님이 먹으니 점심도시락을 못 먹게 된 친구에게 다들 자신들의 김밥을 주면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현장학습을 갈 때 학생들이 어떤 밥을 싸오는지 저는 지금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도 선생님들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기에 바빴습니다. 선생님들 도시락을 먹다 귀여운 녀석들이 선생님 김밥 하나 드셔 보라고 가져오면 그것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천수 선생님은 일부러 학생들의 도시락을 확인하고, 뭔가 허전하거나 준비가 덜 된 도시락을 일부러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면 칭찬을 해 주어 그 학생이 도시락 때문에 맘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학생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보니 다른 모든 친구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싸왔는데 혼자 백밥을 싸 온 학생이라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 생각하니 이해가 갔습니다.

흰 백밥을 싸 온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여러 상상을 할 것이고, 또 짓궂은 친구들은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학생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안계시거나 어머니가 아파 언니나 누나가 김밥을 못 싸 백밥을 싸 주었다면 그 학생은 얼마나 맘이 서글플까요. 그날 이후 저도 항상 현장학습을 가면 학생들의 도시락을 보면서 학생들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버릇없는 학생들은 선생님들 맛있는 도시락을 두고 왜 선생님이 친구들의 도시락을 먹는지도 모르고 '선생님도 선생님께 드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아도 어머니들이 미처 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 준비가 되지 않은 도시락을 싸 온 학생들의 도시락을 먹어주고 맛있다고 말하고, 제 김밥과 교환하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학생들의 도시락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은 저에게도 최고의 맛입니다. 또 백밥이나 다른 도시락을 싸 온 학생이 선생님이 준비한 김밥을 먹고 맛있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박천수 선생님의 그 짧은 순간의 가르침이 저에게는 평생의 교직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작은 상처까지 안아주기 위해 노력하신 박천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직 사회의 훈훈한 미담사례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적어 봅니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김밥을 두고 매일 먹는 흰 백밥과 텁텁한 소시지를 먹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교직자의 모습이 되길 바라며 학생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자 합니다.



가보고 싶은 나라 일본



강 고 은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3학년

2010년 7월 8일 드디어 일본가는 날이 밝아왔다. 어제 저녁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가득 찼
짐을 들고 아침 스쿨버스에 몸을 실었다. 학교 도착, 항구로 출발하는 시간이 12시라 음악실에
서 친구들과 모여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드디어 항구로 출발, 노래를 들으며 수다를 떨다보니 어느새 항구 도착, 우리들이 탈 Panstar
Dream호가 보인다. 재작년보다 수월하게 수속을 마치고 배에 입성! 2년만이라 더욱 더 반갑
다. 방에 짐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갑판에 올랐다. 일본으로 출발을 기다렸지만
배에 옮겨야 하는 화물 문제로 연착이 되었다. 점점 지쳐갈 때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들렸
다. 재빨리 갑판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 틈에 나도 자리를 잡고 서서히 멀어지는 부산을 바라보
았다. 안녕! 한국, 우리는 갑판 위에서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도 하며 시원한 바닷바
람을 쐬었다. 밤엔 멋진 마술 공연과 노래 공연을 보며 일본에 조금씩 다가갔다.

다음날 드디어 손바닥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일본 땅, 실감이 나지 않던 일본 여행의 기대감으
로 설레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진 교토조형예술대학으로 이동
했다. 어제 연착이 되어 미뤄진 일정으로 우리는 빨리 이동해야만 했다. 대학에 도착하니 점심
시간이 다 되어 우리는 교내 식당에서 식사부터 하기로 했다. 일본 카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
맛이 조금 더 많이 났다.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우리는 강의실에서 부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
었다. 통역은 우리 학교 졸업생인 이동환, 양태기 선생님이 멋지게 해주셨다. 그 후 가이드 언니
를 따라 학교 곳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얘기를 나누며 우리나라 대학과 비교도 해봤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만화 박물관으로 이동, 역시 만화 선진국답게 엄청난 만화에 대한 자
료들이 있었다. 평소 만화에 관심이 없던 나도 '우와!' 저절로 탄성이 나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렇게 즐겁게 구경을 하고 드디어 저녁시간 샤브샤브를 먹으러 출발! 뷔페에서 샤브샤브를 먹
으며 유리창 너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밥을 먹으며 야경을 사진
으로 찍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은 서로 먹어보라며 넘기기도 하며 일본 음식의 진수를
맛보았다. 식사를 마치고 3일 동안 묵을 호텔로 향했다. 첫 날이라 조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도
착한 호텔에서 짐을 풀고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내일의 스케줄을 생각해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바라본 유니버

셜 스튜디오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선생님께 프리패스 이용권과 식권을 받은 후 자유시간을 만끽하며 신나게 구경을 하며 돌아다녔다. 우리가 맨 처음 탄 것은 할리우드 드림 톨러코스터였다. 낙하하는 것이 한두 번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계속해서 스릴을 느끼며 환호했다. 그렇게 무섭고 재밌게 첫 놀이 기구를 탄 후 우리는 그 유명한 스파이더맨을 찾아 갔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만만하게 봤더니 세상에 건물 안에 엄청난 줄이 숨어 있었다. 장장 1시간 넘게 기다려 체험한 스파이더맨은 세상에 상상 이상으로 재미가 있었다. 역시 일본의 기술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백투더퓨처를 지나 죠스까지 탔더니 어휴! 너무 다리도 아프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 여기서 더 이상은 체험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모임 장소에서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여러 추억을 남긴 뒤 다시 버스에 몸을 실어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김치찌개 집으로 이동하였다.

일본에서 먹는 김치찌개라 그런지 조금 특별하기도 하면서 맵지 않고 달달한 맛에 아, 여기는 일본이지 하며 우리 된장 맛이 입에 맴돌았다. 그리곤 다시 숙소로 이동해 취침, 얼마나 피곤했던지 저녁 8시 30분에 모두 쓰러졌다.

다음날 오사카의 명물 오사카 성으로 우리는 이동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할 당시에 지은 오사카성은 지금은 복원된 상태로 많이 변질된 모습이지만 장엄한 성의 모습은 우리를 압도했다. 오사카성에 금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금으로 해놓아 8번이나 도둑이 드는 바람에 지금은 도금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오사카 성에서 기념품을 사고 기념 사진도 찍은 후 우리는 오사카 최대의 전자상가 텐덴타운에 들었다. 텐덴타운에 도착할 때 즈음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어 내리자마자 편의점에 들러 비닐우산을 샀다. 그리곤 친구와 함께 텐덴타운 거리를 걸었다. 역시 만화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만화에 관련된 가게들이 무척 많았다. 그리고 유명한 전자제품을 파는 곳도 굉장히 많았다. 우리는 100엔 샵에 들러 쇼핑을 맘껏하며 예쁜 약세사리를 사기도 했다.

다음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일본 전통 음식을 하는 가게에 갔다. 눈을 즐겁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본인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너무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싱겁게 먹는 일본이라 그런지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아 아쉬웠다. 그리곤 다음 관광지 일본 최대의 먹자거리 도톤보리에 들었다. 먹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역시 엄청난 종류의 음식집이 모여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엔 쇼핑거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볼 것이 많은 곳이다. 일본은 화장품이 발달된 나라인 만큼 화장품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무엇을 사야할 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일본인 분이 있어서 더욱더 재미나고 즐겁게 쇼핑했다. 그리곤 저녁

을 먹으러 고기 뷔페로 갔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 오늘 느낀 것은 다른 문화에 불편하기도 하면서 본받아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심거리에는 광고지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져 있지만 일본은 광고지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지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깨끗한 일본 사람들의 질서 문화를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다시 호텔로 향했지만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호텔 조식 후 우리는 NHK 방송국으로 향했다. NHK 방송국은 우리나라의 KBS와 비슷한 곳이다. 여자부와 남자부로 나뉘어서 들어갔는데 먼저 여자부가 출발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나는 뉴스 방송을 체험했다. 먼저 녹음한 뒤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체험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니 스튜디오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참 구경하고 있던 일본 아이가 NHK방송국 마스코트 거북이를 잡고 있었다. 친구랑 나는 종이를 구해 열심히 접어보았는데 장장 30분이 걸렸다. 그렇게 또 방송국에서 추억을 만들고 우리는 건국고등학교로 향했다. 건국고등학교는 재일교포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고 있는 학교다. 우리는 강의실에 들러 약 40분 동안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으며 애국심을 기를 수 있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오니 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었다. 타국에서 우리말을 들으니 너무나 반가웠다.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우리는 일본에서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Panstar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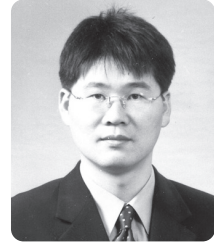
배에서 석식을 하고 쉬고 있는데 방송에서 노래자랑을 하니 신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하고 내 차례를 기다렸다. 9살 동생이 너무 노래를 잘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로 나갔지만 힘껏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살렸다. 심사 결과 내가 1등이 되었다. 부상으로 배안의 제일 좋은 스위트룸에서 잘 수 있게 되어 너무 황홀한 밤을 맞이하였다. 친구들이 더 좋아하며 마지막 밤을 좋은 곳에서 함께 보내고 아침 일찍 갑판에 올라가니 서서히 보이는 한국 땅이 너무 반가웠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5박 6일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경남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여행인 일본여행, 그래서 더욱 더 잊을 수 없고 행복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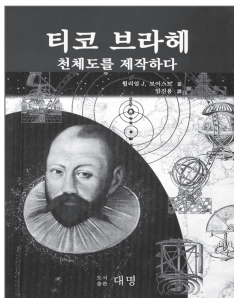




티코 브라헤 (천체도를 제작하다)



조기만
진주동명고등학교 교사



우리의 하루는 낮과 밤으로 양분된다. 그 중 밤은 우리 인류가 끊임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쳤던 무대다. 수없이 많은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추구했던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Tycho Brahe)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얼마 전 『티코 브라헤(천체도를 제작하다)』라는 제목의 청소년 교양 서적이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 진주동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젊은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케플러(Johannes Kepler), 갈릴레이(Galileo Galilei), 뉴턴(Isaac Newton)으로 이어지는 근대 천문학의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상세하고도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미국,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되고 관심을 받아오던 티코 브라헤를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지동설 체계를 수립했던 천문학자가 아닌데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천문학사(天文學史) 쪽으로는 별로 모여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연구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출판된 책이라 더욱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겠다.

『티코 브라헤(천체도를 제작하다)』는 덴마크 귀족으로 태어나 호사스러운 생활로 영지를 다스리며 평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청년이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일생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그의 연구는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긴

했지만, 그 무엇보다 그의 창의적인 사고와 폭넓은 이해력이 당대 어떤 천문학자, 자연 철학자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근대 천체물리학의 장(場)을 열었던 케플러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인 티코와 다투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존경심을 가지며 본받으려 했다. 이런 각오와 정신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부족한 면일 뿐만 아니라, 훈련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순간, 티코는 자신의 연구가 헛되지 않도록 제자인 케플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면서 천상 세계의 진실을 꼭 밝혀 달라는 부탁을 하며 눈을 감는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부질없는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바른 진실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티코 브라헤는 순수한 이념과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도 언제나 열린 마음이었다. 비록 그의 업적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융합된 ‘티코 시스템(Tychonic System)’ 까지만 도달하고 말았지만, 훗날 그것은 지동설 체계의 수립과 천체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책이 지닌 본연의 훌륭한 가치는 이 책이 다양한 천문학적 지식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외길을 걸어간 티코의 품성이다. 하루하루를 조바심으로 성급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티코의 일생을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게 한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가 어렵게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라는 수고로움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앞서, 현직 교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체로 재미있게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런 부류의 책이 우리 교사들에 의해 많이 출판되어 학생들 가슴에 아름다운 파동이 되어 울리길 간절히 바란다.



♪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정 윤 호
거제 계룡중학교 교사

♪. 베토벤의 교향곡들에 얽힌 이야기 몇 가지



♪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영웅>은 연주 시간이 약 50분이다. 그 때까지 나온 교향곡 중에 그렇게 긴 곡은 없었다. 선배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은 길어야 30분을 조금 넘길 정도였다.

<영웅>이 처음 세상에 소개되자 주위에서는 너무 길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한 베토벤의 대답은 간단했다.

“50분이 너무 길다고? 두고 보게. 나의 교향곡이 1시간이 넘어도 너무 짧다고 불평할 때가 올 테니.”

♪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c단조는 <운명>이라는 곡명으로도 불린다. 다만 이것은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별명이고 서양에서는 그저 c단조 교향곡이라고만 한다. 안톤 쇤틀러(Anton Schindler)가 쓴 베토벤의 전기에 ‘어느 날 작곡가는 제1악장 시작을 가리키면서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였다’는 대목이 있어 그것이 동양(아마도 일본)에서 <운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동기가 되었으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다다다. 다 -”

짧은 음 세 개와 긴 음 하나로 이루어진 이른바 ‘운명의 동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 웅장한 모티브를 실은 베토벤이 수풀 속을 산책하다 “삐삐삐, 삐 -”하는 귀여운 새소리에서 힌트를 얻어 창안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 후세에 한 음악학자는 그러한 일화를 염두에 둔 듯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대포 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베토벤은 새 소리로 인류를 놀라게 했다!”

작품명 : 입신양명



출전 《孝經》〈개종명의〉

立身行道(입신행도) 揚名後世(양명후세)

입신하여 도를 실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빛내어라.

孝經 開宗明義에 “공자 가라사대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빛내어 부모를 顯揚함은 효의 마지막 행위이다.

子曰 立身行道 揚名於後世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하였다.



손 봉 호

- 현 창남초등학교 교장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한문) 입선 1회
- 경상남도미술대전 서예(한문) 입선 및 특선 각 4회
- 경상남도 교원 예능 연구대회 서예(한글, 한문) 최우수 3회
- 경상남도 교원 예능 연구대회서예(한문) 심사위원 2회
 - 한국미협거창지부회원전 출품 다수
 - 거창 예총제 출품 다수
-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 5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제1악장이 512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악보대로 제시부를 반복하면 정확히 650소절이 되고, 제2악장은 139소절, 제3악장은 반복되는 소절 전부를 합하면 468소절이 된다. 여기까지는 팀파니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제4악장 ‘폭풍우’의 제21소절에서 비로소 팀파니의 트레몰로가 ff로 시작된다.

유명한 팀파니스트 에른스트 프훨트는 좀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영국에서 밀러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팀파니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날 밀러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 스틱을 집어 들고 신나게 팀파니를 두드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프훨트가 명령하듯 말했다.

“잠깐 기다리게, 밀러군! 팀파니 주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히 박자를 지키고 휴지(休止)를 세는 것일세.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공부해야 해. 여기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준비했네. 그럼 시작해보게”

청년은 눈을 똑바로 뜨고 650이나 되는 제1악장 소절을 틀릴세라 열심히 세어 보았다. 그렇지만 팀파니가 나오는 곳은 없었다. 139소절인 제2악장도, 468소절인 제3악장도 마찬가지였다. 제4악장에 들어가서야 21번째 소절부터 팀파니가 나오기에 청년은 이제야 왔구나! 박자를 맞추어 두드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 때였다. 스승인 프훨트가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끄집어내어 힐끗 보더니 제20소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군. 오늘 레슨은 그만하고 다음에 계속하자구!”

♪ 오늘 날 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향곡의 왕자로 대접받고 있는 제9번 〈합창〉교향곡은 당시에는 꽤 냉대를 받기도 하였다. 작곡가가 애초의 서약대로 그 곡을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에게 바치자 예상 밖으로 싸늘한 답신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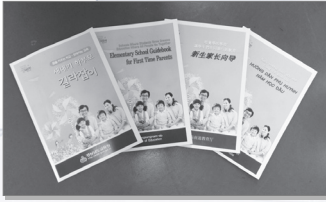
“... 과인이 그 작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했다는 증거로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함께 보내노라”

훈장 하나쯤은 하사하리라고 기대하던 베토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욱이 국왕이 보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붉은 색의 돌이었다. 베토벤이 당장 그것을 팔기 위해 보석상에 가지고 가보니 결과는 ‘가짜’였고 구매가는 고작 300구르텐이었다.(어느 암채가 도중에서 갈아치기 했으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출처 :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신동헌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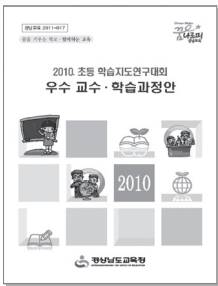
장학자료 발간 안내

■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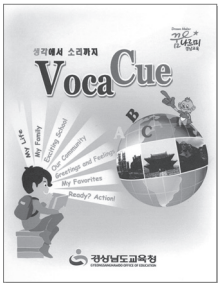
2011학년도 초등 1학년 취학 자녀를 둔 새내기 학부모님의 학교교육 이해와 가정에서의 학생 지도를 위한 『2011.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베트남어판 4종 총 약5만부를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도 함께 개발 보급하였음

■ 초등 학습지도연구대회 우수 교수·학습과정안 모음집



2010. 초등 교실수업개선 학습지도연구대회 결과 전 지역교육청에서 1등급을 수상한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안 모음집을 개발하여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였고 도교육청 부서별 홈페이지 교육과정기획과 자료실에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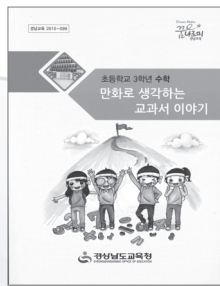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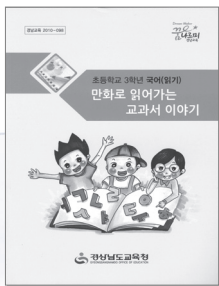
■ 『생각에서 소리까지 Voca Cue』 - 초등학교 영어 단어장



2011학년도 전 초등학교 6학년에게 영어단어장 『생각에서 소리까지 Voca Cue』 개발하여 보급, 『생각에서 소리까지 Voca Cue』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420개의 낱말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 감정, 사물, 동물, 움직임 등 우리 생활주변의 주제를 7개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대화문 까지 만들어 학생들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만화로 읽어가는 교과서 이야기 : 초 3학년 국어(읽기)

■ 만화로 생각하는 교과서 이야기 : 초 3학년 수학



초등학교 3학년 국어(읽기),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과 만화, 만화와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독서하듯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유별제로 학습할 수 있음

초등학교 취학 이렇게.....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